

# 대불산단 떠나는 노동자들... '인력난' 조선업 어찌나

### 저임금·고강도 업무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 외국인들도 기피 불법하도급 등 개선하고 정규직 채용·복지정책 먼저 살펴야

오랜 기간 불황을 겪어왔던 조선업계가 재기의 발판을 두고 있지만,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근로자들로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는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전남지역은 계속되는 인구 유출로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탓에 조선업계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대불산단 조선업계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청중심의 생산체계와 임금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혁신적인 근무환경 개선 등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대불산단(조선업) 인력난 원인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제 자료를 보면 전남지역은 2011년 이후 전일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많아 인구 순이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남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117만명에서 2030년 100만명, 2050년에는 66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갈수록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처럼 인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불산단의

주력 산업인 조선산업의 인력부족 문제는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내 조선산업 고용구조의 특성상 협력업체 중심 생산으로 이뤄지는데, 대불산단 역시 마찬가지다. 조선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원·하청노동자 간 임금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조선산업은 건설업과 함께 대표적으로 중대재해(사망사고) 발생이 높은 산업이다. 특히 산재사망사고의 피해자 중 다수가 생산직인 사내협력사 노동자라는 게 박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또 대불산단은 운산과 거제보다 인력확보 어려움이 더 심해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이 많다. 대불산단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70% 전후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업의 고강도 노동과 위험한 근무환경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 역시 조선업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통한 조선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잦은 이직으로 인한 숙련저해와 중대재해 문제 등 사내협력사 활용의 단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젊은 근로자들을 조선소로 유인하기 위해 조선업의 이미지 개선도 필수적 요소다. 저임금, 위험한 조선소, 열악한 근무조건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

혁신적인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 없이는 청년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모두 조선업계를 기피해 인력난은 지속될 것이라는 게 박 부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를 참석한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도 조선업 일자리 문제는 이어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업계의 질 좋은 일자리 문제가 시급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이 되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도 조선업 대신 다른 업종으로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선업 현장 근로자들이 다루는 장비와 발판 등은 무거운 데다, 노동강도 역시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산업 제조업체와 달리 휴식시간과 안전교육, 건강검진 등 복지를 비롯해 주거와 교육, 문화 등 전반적인 근로여건이 역시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문 센터장은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정규직 채용이 필요, 이밖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주기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복지정책을 우선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불법하도급 등 문제를 개선하고, 조선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총장축제로 전남 대표 수산물 만나세요

### 11개 전남 수협, 13~15일 '어식백세' 직거래장터 무료 시식 코너·반짝 할인판매·홍어 해체쇼 등 다채

전남 11개 수협이 내놓는 대표 수산물을 '추석의 총장축제'에서 만나게 된다.

수협중앙회 전남본부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추석의 총장축제' 행사장 일원에서 '제5회 어식백세 전남제출 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전남 11개 수협이 참가하는 직거래장터에는 14개 행사장과 판매장이 마련된다. 행사 공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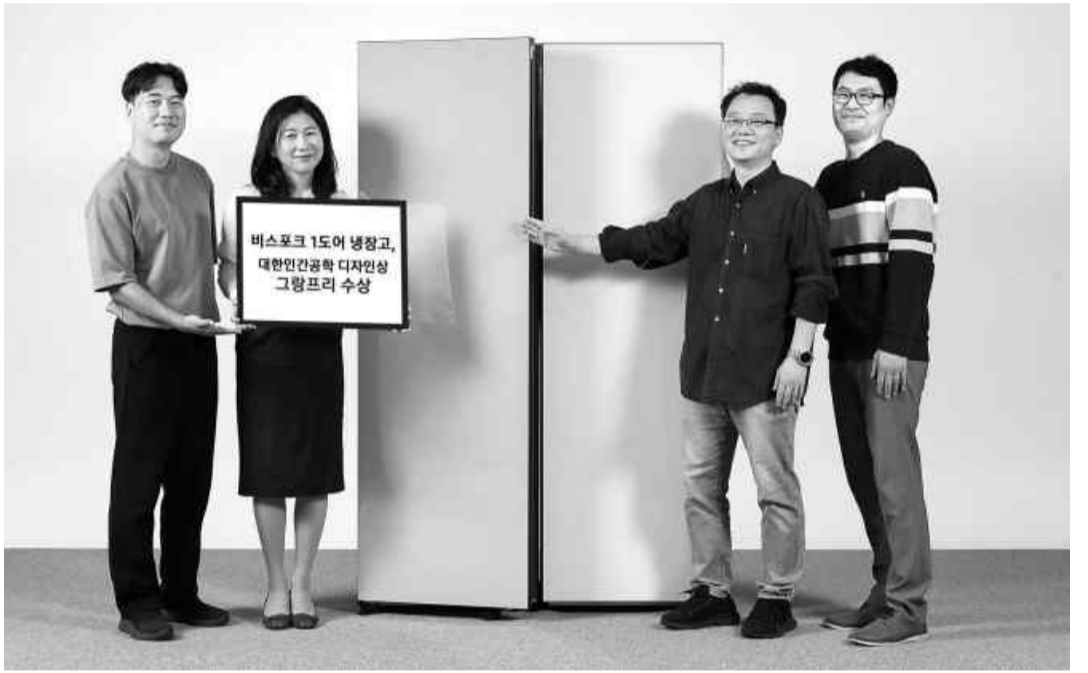
서는 수산물을 무료로 시식하거나 반짝 할인 판매, '홍어 해체쇼' 등을 즐길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린다. 전남도와 수협이 각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이는 2019년보다 2배 늘어난 규모다.

각 수협이 선보이는 수산물은 제철을 맞은 꽃게와 새우 등 다양하다. 신안군수협은 추젓, 육

젓, 김, 천일염, 홍어회 등을 내놓는다. 이외 ▲영광군수협 굴비·젓갈류·꽃게 ▲완도군일수협 활전복·미역·다시마·미역 ▲진도군수협 멸치·병어·김·김자반·아구포·취치포 ▲해남군수협·고흥군수협 김·마린미역 ▲여수수협 반건조 민어·손질 오징어·가자미·장어 ▲장흥군수협 김·꼬시래기 ▲민물장어양식수협 민물장어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반건조 우럭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광어회 등이 전열대에 오른다.

'어식백세'는 우리 수산물로 100세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수협이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 인간공학디자인상 '그랑프리' 라이프스타일 맞춤 패널·오토 오픈 도어 기능 등 갖춰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가 대한인간공학회가 주관하는 '2022년 인간공학 디자인상'에서 최고상인 '그랑프리'(Grand Prix Award)를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수상 제품에는 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뿐 아니라 2월 첫 선을 보인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 1도어 냉장고도 포함됐다.

올해 22회를 맞는 인간공학디자인상은 ▲사용 용이성 ▲효율성 ▲기능성 ▲감성품질 ▲안정성 등을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해 시상한다.

이 중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가 이름을 올린 '그랑프리'는 가전, 가구, 자동차 등 전 분야의 제품을 통틀어 인간공학적으로 가장 우수한 제품에 주어지는 상이다.

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는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냉동·냉장·와인·김치 냉장고의 조합이 가능하고, 다양한 사용 환경에 어울리는 패널을 직

접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용자의 동선을 최우선으로 한 설계로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도어에 위치한 센서에 손을 가까이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냉장고 문을 열 수 있는 '오토 오픈 도어' 기능을 새롭게 적용해 손잡이를 잡고 도어를 열 때 손목과 어깨에 느껴지는 부담을 덜어 준다. 이 센서는 아동과 장애인도 무리 없이 터치할 수 있는 높이에 적용됐다.

양혜순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삼성전자 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는 취향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론, 제품 곳곳에 소비자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기능과 설계가 적용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사용 패턴과 신체 특성 등을 고려해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을 선보이도록 체계적인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위니아 박병건씨 '전자·IT의 날' 대통령 표창

위니아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17회 전자·IT의 날' 기념행사에서 박병건(사진) 제품개발 담당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전자·IT의 날'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매년 전자·IT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위상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유공자들을 포상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행사다.

박병건 담당은 고객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김치냉장고, 냉장고, 전기압력밥솥 등의 가전 제품을 연구·개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국내 가전 시장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박 담당은 김치냉장고 '딤채' 개발 초창기부터 제품의 기능 향상 및 대중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외 김치냉장고 시장 확대를 견인했다는 평가다.

2007년 기술 역량 확장을 통해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를 개발한 것에 이어 전기압력밥솥 '딤채 쿡'을 개발, 뒤이어 세계 최초 IH 전기압력밥솥



'당질 저감' 신기술을 개발해 제품에 적용한 바 있다.

박병건 담당은 "고객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겠다는 목표 아래 가전제품을 개발해 온 그동안의 시간이 더욱 값지게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제품 개발을 통해 국내 산업 발전은 물론 위니아의 성장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섬 방문 원스톱 보증 서비스 전남신보, 여수 거문도서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은 최근 여수 거문도에서 '하반기 원스톱 보증 서비스'를 벌였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먼 거리에 있는 어촌 소상공인의 보증지원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전남신보는 여수 삼산면, 농협은행 여수센터럴 지점과 공동 지원단을 구성했다.

거문도 소상공인들은 보증 대출을 받기 위해 세 시간 가까이 배를 이용해 여수 시내까지 이동해야 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보증 상담과 대출 상담, 서류 접수 등 절차를 한 번에 지원했다.

한편 전남신보와 농협은행이 맺은 '무방문 신용보증 업무협약' 덕분에 지역 소상공인들은 재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에서 보증 상담과 대출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상가매매(상무지구) (유형적합)	신축 원룸 매매	경매교육 [ 기초반 ] [ 특수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심 상업지구</li> <li>▶ 유흥가능 (전용 100평)</li> <li>▶ 시세 - 10억</li> <li>▶ 급매 - 6억8천</li> </ul> <p>(보3천,월수익 380만 ,용 4억) (유흥가능, 사무실, 뼈, 룸, 홀덤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수익 - 720만</li> <li>● 연수익 - 9000만</li> <li>● 매가 - 14억5천 (용자 7억)</li> </ul> <p>신축원룸 (공실없음)</p>	<p>* 경매실전 전문반 모집 (선착순10명) (경매기초교육부터 ~ 실전투자 수익창출까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li> <li>2) 중급반 (실전부터 ~)</li> <li>3)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li> <li>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li> </ol>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남구 지석동 (토지)</td> <td>▶ 감평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td> </tr> <tr> <td>광산구 수완동(윤슬의아침)</td> <td>▶ 감평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td> </tr> <tr> <td>북구 삼각동 (여린이집)</td> <td>▶ 감평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td> </tr> <tr> <td>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td> <td>▶ 감평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td> </tr> <tr> <td>광산구 하남동 (공장)</td> <td>▶ 감평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td> </tr> <tr> <td>서구 농성동 (토지)</td> <td>▶ 감평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td> </tr> <tr> <td>서구 풍암동 (토지)</td> <td>▶ 감평가 25억 → 최저가 14억</td> </tr> <tr> <td>북구 용봉동 (근린상가)</td> <td>▶ 감평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td> </tr> </table>	남구 지석동 (토지)	▶ 감평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	광산구 수완동(윤슬의아침)	▶ 감평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	북구 삼각동 (여린이집)	▶ 감평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	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평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평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	서구 농성동 (토지)	▶ 감평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	서구 풍암동 (토지)	▶ 감평가 25억 → 최저가 14억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평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남구 지석동 (토지)	▶ 감평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																	
광산구 수완동(윤슬의아침)	▶ 감평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																	
북구 삼각동 (여린이집)	▶ 감평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																	
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평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평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																	
서구 농성동 (토지)	▶ 감평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																	
서구 풍암동 (토지)	▶ 감평가 25억 → 최저가 14억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평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h1>010-6670-9800</h1>		<h1>010-2614-9801</h1>																